문 성병은 언제,어떻게 걸리고,그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1970년도부터 세계 보건 기구는 성적 질환을 육체적 접촉 전염병이라 부르고 있으며 신체 어느 부위나 어떤 곳에서든지 감염·발생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성병은 감염원이나 감염방법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의 조심 여하에 따라서 예방할 수 있다. 근래에는 치료제 개발을 앞지르기라도 하려는 듯이 헤르페스, 페니실린 내성임균, 스펙디노 내성 임균등 신종 성병, 약제 내성균등이 증가하고 있다.

1. 주요 성병

가. 매독

• 원인균 : Treponema pallidum

• 잠복기 : 보통 3주일

• 전염원 : 환자의 정액, 타액, 분비물 등

• 감염 경로

－후천성 감염은 성교, 키스, 수유, 수혈

－간접 감염은 식기, 면도기, 빗

－선천성 감염은 임신 5개월 이후 체내 태반을 통해 감염

• 증상 : 성관계 후 약 3주일 정도 경과하면 매독균이 침투한 자리에 반점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며 감염자의 약 10% 정도는 흠집이 생기나 대다수는 전혀 흔적을 보이지 않는다.

그후 3~6개월 쯤 지난 뒤에야 장미색 발진 즉 매독진이 출현하나 자각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게 된다. 2~5년이 지난 만기 매독은 피부, 내장, 뼈, 점막 표면에 파괴성 전염력이 없는 병소를 형성한다.

나. 임질

• 원인균 : 임균(Gonococcus Neisseria Gonorrhoe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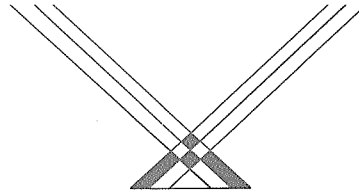
• 잠복기 : 3~9일

• 전염원 : 환자의 점막에서 나오는 삼출물이 원인이다.

• 전파방법 : 성행위에서 대부분 전파된다.

• 증상 : 남자는 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않고 아프며 처음에는 점액같은 분비물이 나오지만 곧 고름이 나온다.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저절로 치유되거나 만성 보균자가 되지만 요도가 좁아지고 아침이면 점액상 분비물이 수개월간 계속해서 나온다.

여자는 처음에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자주 뇨의를 느낀다. 여자는 80%



가 요도염 증상이 경하거나 아주 없다. 남자는 정관에 손상을 입게되고 여자는 나팔관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남녀 모두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임질이 생긴지 1~3주후에 관절염이 생긴다. 관절염이 생긴 환자의 10~20%에서는 무균성 결막염이 생긴다.

신생아는 생후 72시간 이내에 눈의 주위가 붓고 화농성 결막염이 생겨 각막에 궤양을 만든다. 임산부가 임질을 앓고 있을때에는 임균이 태아의 눈에 들어가 눈을 멀게한다.

2. 성병에 감염되었을때 유의사항

첫째 : 반드시 의료기관에 찾아가 의사의 진찰에 따라 치료하여야 한다.

둘째 : 감염되었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받아야 한다. 감추거나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 의사의 완치 판정이 있기까지는 치료를 계속한다.

넷째 : 성병은 성적인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이니만큼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상대자도 같이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방

첫째 : 부부 이외의 불결한 성관계는 피한다.

둘째 : 콘돔의 착용이다. 콘돔은 피임뿐 아니라 성병의 예방에도 효과적인 용구이다. 성교도중 콘돔의 파손이 흔히 일어나므로 콘돔 2중 착용 즉 속의 것은 귀두부 까지만 덮고 겉의 것은 덧씌움의 방법을 권장한다.

셋째 : 성교후 즉시 접촉된 부위를 비누질해서 깨끗이 씻는다. 여성의 경우는 항생제나 화학 살균제가 함유된 질정을 성교후 삽입하면 성병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깨끗이 씻음은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 부부이외엔 농도 짙은 애무는 삼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 성교전에 항생제를 미리 복용 또는 주사해두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의학에 웬만큼 전문지식이 없고선 불가능하다.

성병은 적극적인 예방수단이 없고 보균자의 격리와 통제가 곤란하며 전염원 추적이 어렵고 성병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통념때문에 환자의 협조가 곤란하다. 또한 임질의 경우 약 80%에서 증상이 없으므로 본인이 성병에 걸렸음을 인식하기 이전에 타인에게 옮겨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병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국가부담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비밀리에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으니 이상이 있으면 곧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건협 서울지부부속의원장 이증범 박사〉